

이름 김지인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1.8.31 ~ 2012.05.30
귀국여부	아니오 (7/8/2012 귀국예정)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1. General zoology (Lab 수업이 있음) Lecture: 고등과학 또는 대학에서의 생명과학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Science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수강하는 대규모 강의였습니다.(한국에서, 영역별로 들어야 하는 기본 필수 교양수업과 비슷한 수업이죠). Lab: 학생 한 명 당 하나의 현미경이 주어질 정도로 infra가 탄탄하고 기본적으로 instructor 한 명에게 주어지는 학생수가 20명 남짓으로 작아 학생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지도해줄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반부쯤엔 해부를 하는데(일반 교양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해부를 해볼 수 있게끔 object들이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tuition이 비싼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p> <p>2. Drawing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한 수업이었지만, 일주일에 6시간씩 배정된 길고도 험한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수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목명은 같지만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이론수업을 하는 교수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학생수가 작아서 교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바로 잡아 주시구요. 수업 말미에는 수업 시간에 그린 작품들을 모아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critique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주 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따로 있고 처음에 재료를 사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가장 achievement 가 큰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p> <p>3. Elementary Spanish 1 스페인어 수업은 두 학기 내내 들었는데 교수님마다 차이가 큰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Lecture와 Lab 이 따로 있는데 Lecture 에서는 단어, 기본 문법 등을 배우고 Lab에서는 교수님이 assign 하신 숙제를 온라인으로 complete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갈수록 문법이 어려워져서 시험 공부할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p> <p>4. Women's choir 이 수업 역시 1년동안 쭉 계속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 하고 학기 중에 있는 두 세 번의 공연을 위해 합창 연습을 합니다. SHSU에는 총 세 개의 합창단이 있는데 이것이 그 중 하나로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 고등학교에서 40년동안 학</p>

	<p>생들의 합창 지도를 하신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셔서 노래뿐만 아니라 리더쉽까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학생들만 있다 보니 서로 친해지고 학기 중에 social gathering 도 하면서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p>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p>	<p>새로 듣게 된 과목은 Contemporary biology 와 Forensic science 수업 두가지입니다.</p> <p>1. Contemporary biology</p> <p>이 수업 역시 가을학기에 들었던 general zoology 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학수업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심화내용을 다루기도 하더군요. (DNA transcription, translation 등) 교수님이 따로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셨는데 교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 PPT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아서 수업을 절대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거니..)</p> <p>2. Forensic science</p> <p>Criminal Justice 가 유명한 SHSU에서 CJ 과목 하나는 들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관심분야였던 Forensic science 를 듣게 되었습니다.(평소 CSI도 즐겨보고 했기에, 그리고 학계에서 저명하신 anthropologist 께서 강의를 하셨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고 엄청난 필기량에 한 시간 수업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으로 인하여 진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p>
<p>Tuition 외 지출한 비용</p>	<p>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만이 허용되었으며 그 가격은 \$800 정도였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p> <p>다만 교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공서적 같은 경우 100불, 200불을 훌쩍 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서적 같은 것을 잘 알아보고 사지 않으면 엄청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p>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외부 아파트(3 bedrooms – 두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
숙소비용	한달 rent \$370 + 공과금 \$4-50 (개인마다 다름)
숙소평가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정도로 위치는 좋았고 다른 학생아파트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생활하기에는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식재료를 사다가 아파트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거나 수업중간중간에는 학교 cafeteria나 주변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식사비용	학교 cafeteria에서 사먹을 경우 \$10 내외로 가능합니다.
식사평가	학교 식당: Pizzahut, Burgerking, Chick-fil-A, Quiznos 등 모두 fastfood이다. 매일 사먹는 것은 불가능해요.
보험	미국으로 가기 전에 국내 유학생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goHackers 수기중에 국내 보험에 가입하고 갔는데 학교측에서 인정 해주지 않아 학교 보험을 또 가입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HSU International program 직원분께 이메일로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만 허용이 된다고 했구요. 보험료는 첫 학기 초에 내게 되는데 금액은 \$800 정도였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식비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rent를 제외하면 about \$200 정도.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SHSU가 있는 Huntsville에는 Citi bank가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은행은 오로지 Bank of America 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 우선 미국에 도착하면 BOFA 계좌를 하나 만듭니다. (Debit card- 우리나라 체크카드 같은기능) 부모님께서 Citi bank 계좌에 돈을 예금해주십니다. 교내에 있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BOFA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합니다. 교내 ATM에서 \$500 인출하는데 수수료가 \$1.5이 드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BOFA ATM은 교내에 없지만 학교 근처에 있으므로 걸어다닐만 합니다.

미국에서 있는 동안 기숙사를 사용하고 싶었기에 학교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했습니다. Meningitis vaccination confirm document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수소문 끝에 한 대학병원에 가서 거금을 주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하지만 그제서야 학교측은 기숙사 모집이 모두 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부랴부랴 아파트 계약을 한학기(5개월) 하게되었습니다. (봄학기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계획이었기에) 하지만 생활하다보니 손수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제약이 덜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아파트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Short term contract로 인해 매달 rent에 \$40 씩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housing 결정하실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으로 인천 국제 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보는 저로서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머무는 그 1년이 참 긴 여정이 되겠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두학기가 지나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네요.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와 초원들에서 뛰노는 소와 말들을 보면서 정말 큰 나라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텍사스의 더위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덥습니다. (6월에도 40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실내는 냉방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3~4시쯤- 제일 더울 시간)에 집에 걸어가고 있노라면 정말 이지 줄줄 흐르는 땀에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입니다. 워낙 크다 보니 작은 동네 마트 조차도 차 없이 걸어가기에는 무리라는 게 아쉽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미국에 오기 전엔 1년 동안 영어를 마스터해 오자 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1년 지내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영어듣기 조금 늘고, 그나마 발음 부드럽게 교정되고 한 것이 전부인 듯 합니다. 너무 마음만 앞서 큰 기대를 하고 간다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지요. 1년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포텐셜을 늘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2~3개월 동안은 미국 생활, 수업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의의 경우, 우리는 교환학생으로서 ESL같이 랭귀지 수업듣는 학생들과는 달리 미국 주립 대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으로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수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공 수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처음 한 한달 정도는 교수님마다 다른 수업방식과 더불어 다른 영어 스피킹 (인토네이션, 스피드)에 당황하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서 집에서 복습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수님 말씀도 귀에 어느정도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교수님, 학생들의 태도(마인드)의 차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권위적인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수업도 단순 지식 전달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단, 교수님이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되어 어떤 경험을 한 학생은 있는지, 이런 사건,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학생들은 손을 들며 개인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니 개념의 이해라던가 수업 집중도, 참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메일의 활성화로, 교수님, 조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까지 서스럼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지 못한 것들은 메일을 통해 질문하였고, 수업을 못 간 날에는 노트를 친구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개인적인 국가임은 맞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방학 중에 어떻게 지내는 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지 여행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는 있지만, 미국여행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둘러보고 가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쁜 학기 중에 틈틈이 여행 정보 수집도 하시고, 비행기 정보도 알아보셔서 저렴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방학 중에 굳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학기 중에 있는 일주일 정도의 짧은 방학 (Thanksgiving holiday or spring break)을 이용하셔서 가까운 곳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 제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미국 오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막연한 설렘, 불안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막상 와봐야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큰 세상에서 좀 더 큰 사고를 하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며 생활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토플 공부를 하면서 꼭 해외에 가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오겠노라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 막상 와서 제 인생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 수업을 들으며 제 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Forensic science라는 수업을 들으며 미국 대학원 진학도 염두에 두게 되고 나아가 국과수에서 일하고 있을 제 모습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과연 가능했던 생각이었을까요. 요즘 미국에서 학부 뿐 아니라 석,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넘쳐나지만, 저는 교환학생으로서 1년 동안 그들과는 다른,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